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TradingEconomics: 5월 S&P 미 서비스 PMI 지수 줄었지만...
- YahooBusiness: 5월 서비스 부분 미공급관리자협회 PMI 확대
- WSJ Real Time Economics: 미 실질 국내 총소득은 감소, 미 서부경제 한 파 몰아쳐, 달걀 소매가격 회복, 중국 진출 미 기업들 실적 부진 등
- WSJ: 미 경기 침체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금융]

- WSJ: 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없다”에 베팅
- WSJ: 미 대형은행들 자본요건 20% 오를 수 있다

[서부 항만]

- TheLoadStar: 노동자 파업에 미국 서해안 항구 터미널 폐쇄

[오일]

- CNN Business: 유가 급등... 사우디 아라비아 감산 선언 때문

[글로벌 경제]

- WSJ: 글로벌 경제 성장 마이너스 성적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소매업체 물류 운영 축소 중
- CNN Business: 항공사들,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100억 불 수익 예상
- WSJ: AA 항공사의 파격적인 계획 “비즈니스 여행 재창조 할 것”
- Bloomberg: GPT AI, 진료실에서도 사용 된다

[보고서]

- McKinsey & Company: 조직을 변혁시키는 10가지 추세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TradingEconomics: United States Services PMI 5월 S&P 미 서비스 PMI 지수 줄었지만...

- 5월 관련 구매 관리자 지수가 당초 예비치 55.1에서 54.9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신규 비즈니스에 힘입어 서비스 부문이 2022년 4월 이후 가장 강력한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신규 주문의 증가는 내수 및 수출 시장의 수요 여건 개선 덕분이다. 동시에 기업들은 고용 활동을 다시 확대되었다. 신규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 능력 덕분에 기업들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주 잔고를 줄일 수 있었다. 물가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4월 이후 투입가격과 산출 비용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완화되었다. 한편, 기업 신뢰도는 지속적 평균보다는 여전히 약하지만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TradingEconomics 기사

YahooBusiness: Services PMI® at 50.3%; May 2023 Services ISM® Report On Business

5월 서비스 부분 미공급관리자협회 PMI 확대

- 5월 ISM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3%를 기록하면서 서비스 부분의 경제 활동이 5개월 연속 확장되었다.
- 이 부문은 지난 36개월 중 35개월 동안 성장했으며, 작년 12월에만 유일하게 위축되었었다.
- 한편 기업 활동 지수는 51.5%, 신규 주문 지수는 52.9%, 고용 지수 49.2%를 기록했으며 공급업체 납품 지수 47.7%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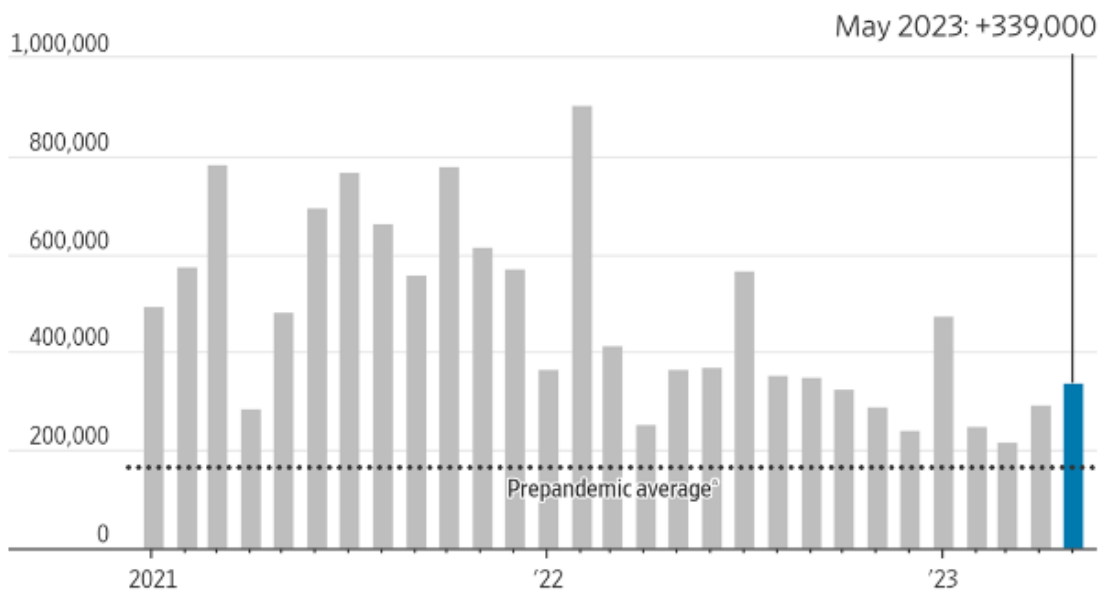
YahooBusiness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미 실질 국내 총소득은 감소, 미 서부경제 한파 몰아쳐, 달걀 소매가격 회복 등

[미 실질 국내 총소득은 감소]

- 미국의 일자리 발표만 보면 호황 같다. 올해 기업들이 1백60만개 일자리를 추가했다.
- 그러나 총 경제 활동의 척도인 미 국내 실질 소득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감소했다. 생산성, 즉, 시간당 생산량은 줄었다.

Nonfarm payrolls, monthly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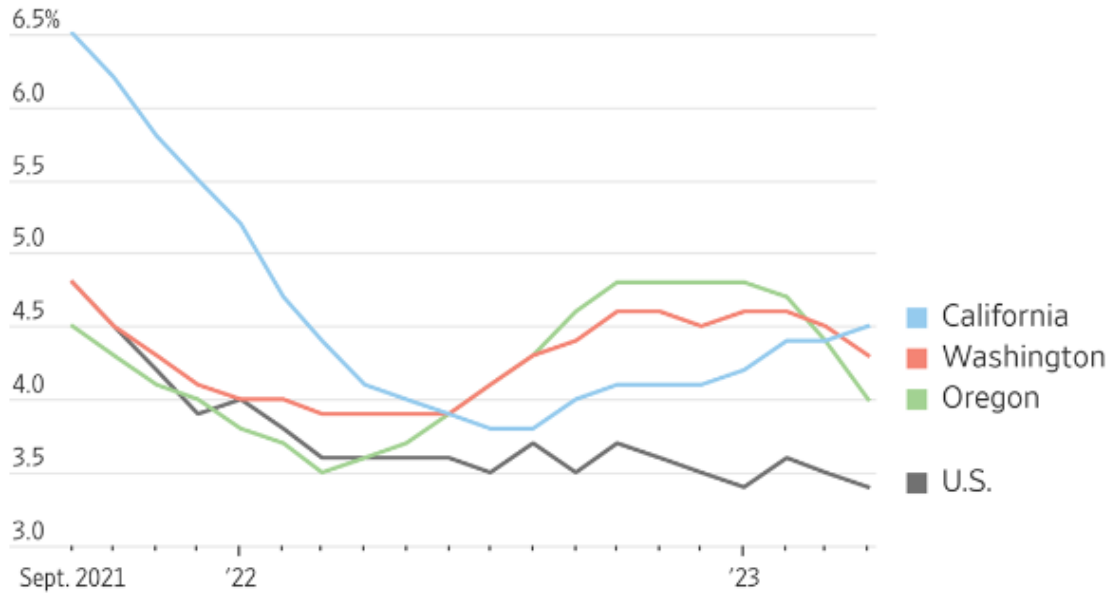


*2019 average.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미 서부경제 한파 몰아쳐]

- 각 분야의 노동자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부, 교사, 식당, 세탁소 등 할 것 없이 캘리포니아 오레곤주 워싱턴주에 수만명 해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높은 실업률, 임금 하락, 주정부 예산축소, 일자리 증가 둔화 현상이 이뤄지고 있다.

Unemployment rates by 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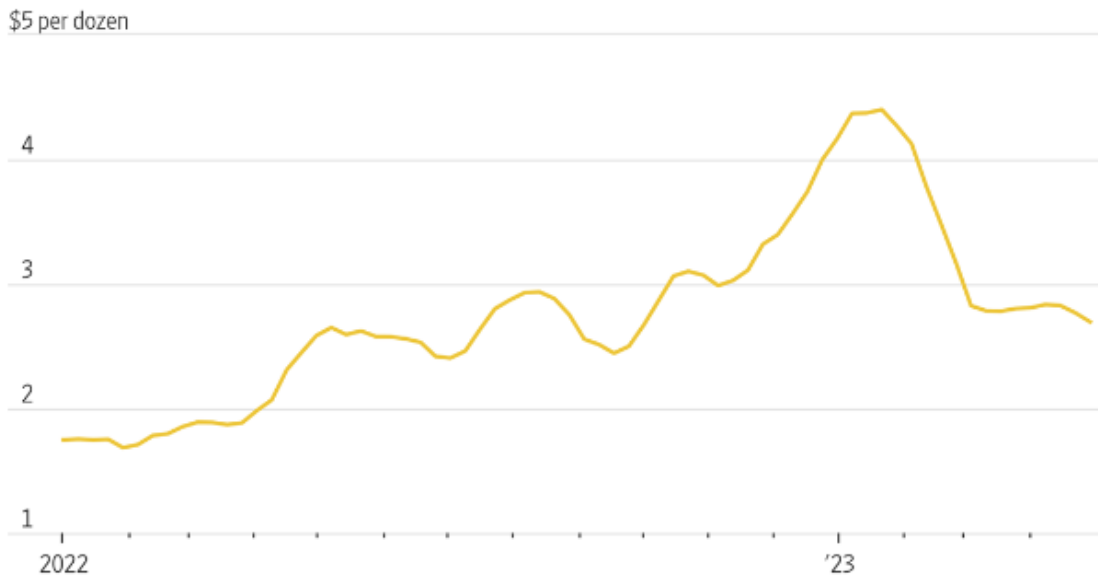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via St. Louis Fed

[달걀 소매가격 회복]

- 역사상 치명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현상으로 올해 1월 달걀 소매가가 12개 당 4불이었다.
- 다행히 조류 인플루엔자 현상이 둔화됨으로써 슈퍼마켓 등은 앞으로 수개월간 기존 평균 가격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Retail egg pr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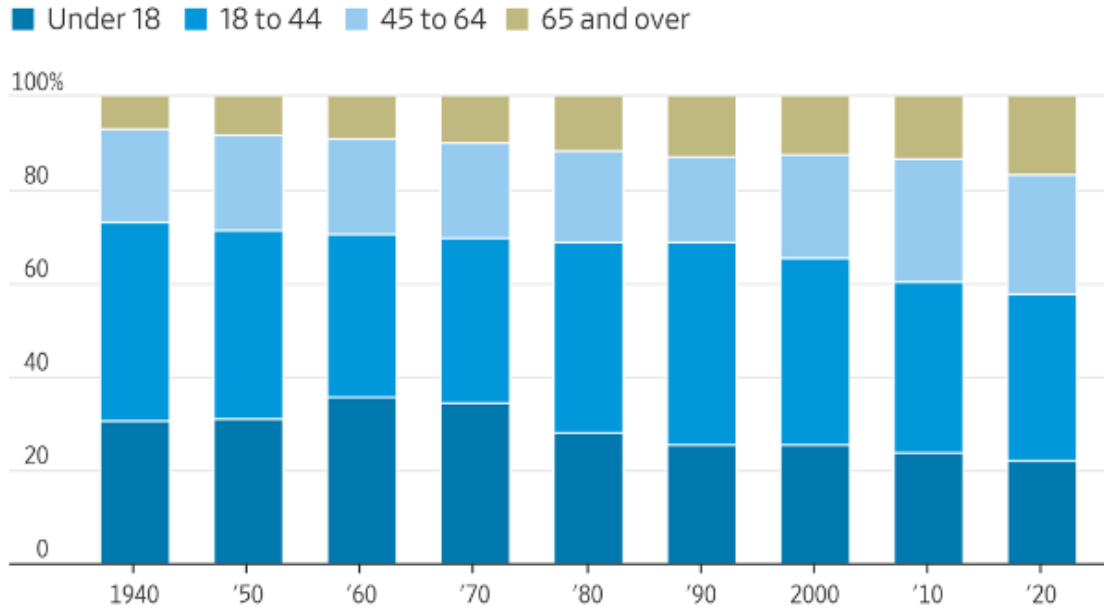


Note: Average retail prices for regular eggs at U.S. stores.
Source: NIQ

[미 인구 연령층 고령화 현상]

- 미국에 85세부터 99세 까지 연령층은 6백2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취학전 아동은 1백만명이나 감소했다.

U.S. age distribution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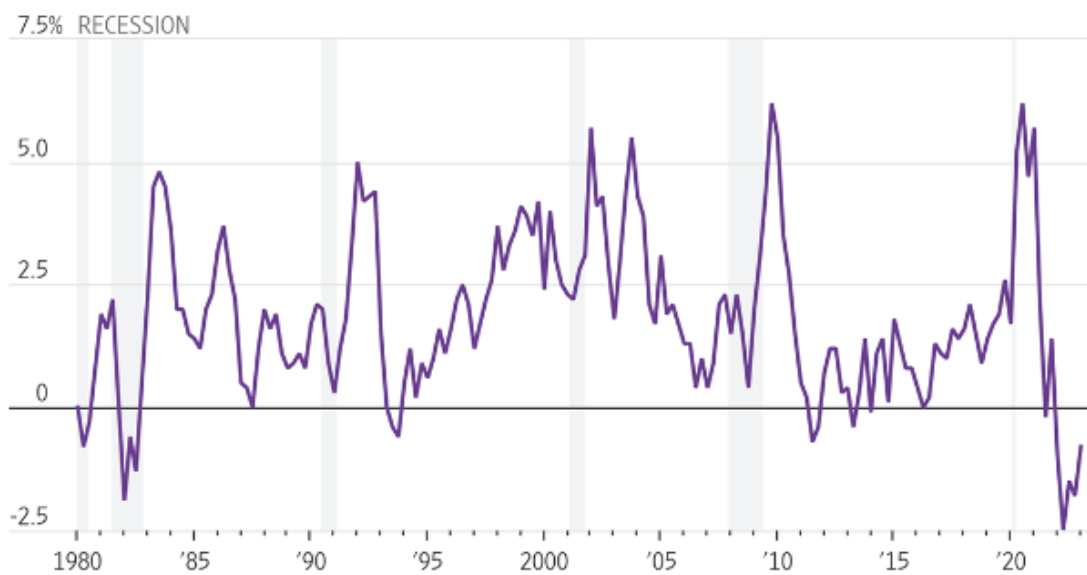


Source: Census Bureau

[중국 진출 미 기업들 실적 부진]

-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 회복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 즉, 칩 제조 업체 퀄컴, 산업계 대표 주자인 Caterpillar와 듀폰 등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Nonfarm business labor productivity, change from a year earlier



Seasonally 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WSJ: Why the U.S. Remains Far From Recession

미 경기 침체 찾아보기 힘들다

-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악화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 고용주들이 적극적으로 애용하고, 소비자들은 자유롭게 소비하고, 주식은 반등하고 있고, 주택시장안 안정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물론 팬데믹 여파로 인해 소비자와 고용주는 여전히 따라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은 자생력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인들은 여행, 콘서트, 외식 등 팬데믹 기간 하지 못했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억눌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을 늘리고 있다. 팬데믹 기간 중 정부의 낮은 금리와 수조 달러의 금융지원 등 덕분에 소비자와 기업들에게는 많은 돈과 저금리 부채가 제공되었다. 연준이 우려한 인플레이가 높은 임금과 수익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
-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올해 하반기 침체가 예상됐으나 현재 흐름은 예상보다 좋은 상황이다. 일자리 증가율은 놀라울 정도다.
- 미시간대 Justin Wolfers 공공행정및 경제학 교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Wall Street Backs Off Bets on Fed Rate Cuts 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없다’에 베팅

- 관련 조사 Tradeweb에 따르면 파생 상품 시장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목표 금리가 지난달 4%를 약간 상회했던 것에서 연말에 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당초 예상이었던, 올해 12월 이전에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올해 시장, 특히 큰 기술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 Apple, Amazon.com, Facebook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은 올해 현재까지 모두 35% 이상 상승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8% 올랐다.
- 일부 관계자들은 경제와 기업 이익의 지속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금리가 인상되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올해 주요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 주식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이다.
- 지난주 금요일 일자리 보고서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률을 반복적으로 과소평가해온 투자자들의 좌절과 실수 었다는 것이다.

Inflation versus year-ago expectation



Note: Inflation projections reflect CPI swaps market
 Source: St. Louis Fed (Inflation); Tradeweb (CPI swaps)

WSJ 기사

WSJ: Big Banks Could Face 20% Boost to Capital Requirements 미 대형은행들 자본요건 20% 오를 수 있다

- 미 규제 당국은 미 대형 은행들의 재무 기반을 강화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런 조치로 중견 은행들의 잇따른 패쇄후에 시스템 회복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새로운 변경 조치로 인해 대형 은행의 전체 자본 요건이 평균적으로 약 20% 인상될 수 있다는 것.
- 투자 은행이나 자산 관리와 같이 수수료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은행도 대규모 자본금 증가에 직면할 수 있다. 자본은 은행이 잠재적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완충 장치이기 때문이라는 것.

WSJ 기사

[서부 향만]

TheLoadStar: News / Worker no-shows force US west coast port terminal shutdowns

노동자 파업에 미국 서해안 항구 터미널 폐쇄

- 미국 서부 해안 노동 계약 협상이 타결을 진전을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여러 터미널 운영이 중단 되고, 다른 시설 화물에 영향을 끼쳤다.
- 이는 Oakland, Hueneme, Seattle, Los Angeles, Long Beach의 항만에 영향을 끼쳤다. Oakland의 두 국제 항만과 국내 화물을 처리하는 Matson 항만도 인력이 부족해 문을 닫았다.
- 국제연안항만창고노조(ILWU)와 태평양해사협회(PMA)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금요일 PMA는 ILWU가 협상 압력을 높이기 위해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며 비난했다.

TheLoadStar 기사

[오일]

CNN Business: Oil prices jump after Saudi Arabia vows to cut production again

유가 급등... 사우디 아라비아 감산 선언 때문

- 이번주 월요일 유가가 급등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7월부터 한 달간 하루 10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이는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산이며, 사우디는 생산량을 하루 900만 배럴로 줄일 예정이다.
- 오늘 월요일 오전 글로벌 벤치마크인 Brent crude는 2.3% 상승한 배럴당 78불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벤치마크인 WTI는 2.4% 상승한 73.50불에 거래되고 있다.
- 휘발유 선물은 1.5% 상승한 반면, 일반 무연 가스 1갤런의 미국 평균 펌프 가격은 3.55불로 변동이 없다.

CNN Business 기사

[글로벌 경제]

WSJ 사설: The Global Economic Growth Deficit

글로벌 경제 성장 마이너스 성적

- 경제 핵심적인 국가인 중국이 슬럼프 중이고 독일은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 중국은 제도 슬럼프가 깊어지고, 서비스 부문도 생기를 잃고 젊은층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에다 부동산 시장이 절뚝거린다.
- 독일은 어떤가? 작년 4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0.5%,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0.3%를 보였다. 소지 지출은 약하고 인플레이션은 높다. 가뜰이나 정부

가 그린 에너지에 과하게 투자한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화석 연료 가격은 오르고 있다.

- 미국은 그나마 좀 낮지만 연간 경제성장은 1%~2% 선이다. 노동시장과 소비지출은 좋지만 기업 신용 여건이 힘들어지고 있고 수익이 적자보니 새로운 투자도 줄고 있다. 중요 국가들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새로운 상황이 보이고 있다. 전례없던 규모의 팬데믹 보조금으로 오히려 긴축정책을 펼치는 상황이 되었다. 러시아 공격으로 글로벌 에너지과 가격이 오르고 있다.
- 문제는 현재의 대응정책이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독일정부는 기후변화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값비싼 에너지 청구서로 기업과 가계를 질질시키고, 현실적으로 너무 비싼 풍력과 태양 보조금을 늘리고 있다.
- 중국은 어떤가? 민간 경제 진흥보다는 공산당 정치 통제에 힘을 쏟고 있고,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테크 기업들에 제동을 걸고 있다.
-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 모든 경제 정책 결정에서 성장보다는 동등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 전반에 걸쳐 비생산적으로 규제조치를 사용해 민간 자본을 할당하고 있다. 예컨대 청정 보조금을 강조하는 미국 인플레이 감축법으로 유럽등과의 무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 글로벌 지도자들은 최근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세금 인상, 경제 침체 무시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리더들은 소득재분배나 산업정책보다는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Retailers Are Shrinking Logistics Operations in a Changing Consumer Market

소매업체 물류 운영 축소 중

- 소매업체들이 창고 공간을 줄이고 물류 네트워크를 줄이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고, 소비 패턴이 서비스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 Big Lots와 Walmart는 물류 운영 재조정을 위해 창고를 폐쇄하거나 유통 직원을 해고 했다. 이는 물류 인력 충원과 창고 수요 시장 진정에 도움이 되었다.
- Big Lots는 전진 물류 센터 4곳을 폐쇄했다. 이 회사의 최고 재무 및 관리 책임자인 Jonathan Ramsden은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는 추가 용량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경기 위축은 물류창고 고용에 타격을 주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이 부문의 일자리는 5월에 1천 9백 개 감소하여 2022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Airlines expect to make \$10 billion this year despite economic slowdown

항공사들,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100억 불 수익 예상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주요 항공사들은 올해 약 100억 불의 수익을 올릴 것이다.
- IATA의 Willie Walsh 사무총장은 화물 수익, 중국의 경제 재개, 연료 가격 하락 등이 수익성 강화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 IATA는 세계 항공 산업의 올해 수익 전망을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항공사들은 올해 98억 불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전망치는 47억 불이었다.
- 업계 주요 기업은 올해 43억 5천만 명이 항공 여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때 18억 명의 승객이 항공 여행을 한 것과 비교 된다.

CNN Business 기사

WSJ: American Airlines' Radical Plan to Reinvent Business Travel

AA 항공사파격적인 계획 “비즈니스 여행 재창조 할 것”

- 팬데믹 이후 비즈니스 출장이 사라지면서, 한때 항공사에서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던 출장자들이 사라졌다고 American Airlines의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 Vasu Raja가 말했다.
-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기업에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기업은 최소의 항공 예약량 보장을 약속한다. 하지만 목표했던 예약량 6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Raja가 말했다.
- 아메리칸 항공은 추가 혜택과 가격 인하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일부 기업 여행사 및 고객과의 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관계자의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은 350명의 영업팀 중 40% 이상을 감원했다.
- 이 항공사는 많은 항공편을 보유한 네트워크와 로열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여행객을 계속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여행사 수수료와 기업 할인으로 수백만 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WSJ 기사

Bloomberg: GPT AI Has Arrived in the Doctor's Office

GPT AI, 진료실에서도 사용 된다

- Carbon Health Technologies의 제품은 진료 관련오디오 녹음과 정보를 결합하여 의료 차트를 생성한다. 이는 GPT-4를 기반으로 하며, 환자 치료 지침과 진단, 청구용 코드도 생성한다.
-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 도구가 약물, 시술, 질병의 이름을 정확히 사용하여 환자 진료를 기록한다. 이 기록은 다른 정보와 결합 되어 환자 진료에 대한 정보 요약을 만든다.

- 약 90%에 달하는 의료 기록이 수정 없이 의료진에 의해 승인되며, 수기로 작성된 기록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된다고 회사 관계자가 밝혔다.
- 의학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부터 환자 진단에 이르기까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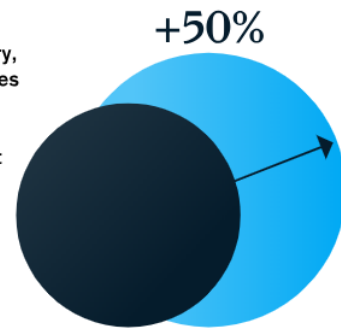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보고서]

McKinsey & Company: The State of Organizations 2023: Ten shifts transforming organizations
조직을 변혁시키는 10가지 추세

- 속도 향상 및 회복탄력성 강화: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조직은 미래 충격 대응에 철저히 준비한다.

In the 2020–21 economic recovery, resilient companies generated TSR 50% higher than their less resilient peers'



McKinsey & Company

>4 of 5 employees who have worked in hybrid models over the past 2 years want to retain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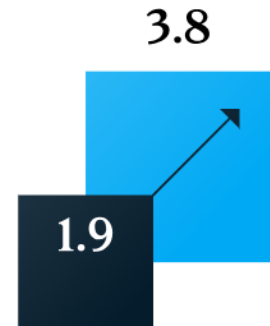


McKinsey & Company

- 하이브리드 근무: 팬데믹 이후 90%의 조직에서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도입했다. 조직은 직원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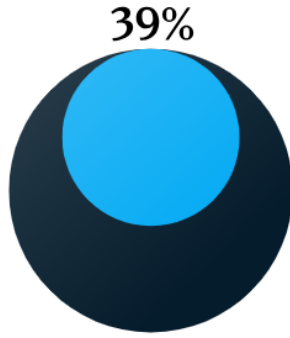
- 응용 AI: AI는 기업 운영 향상과 더 나은 조직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조직은 이를 사용하여 근무 방식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구조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Organizations used an average of 3.8 AI capabilities (eg, natural-language generation, computer vision) in 2022, double the 1.9 used in 2018



McKinsey & Company

39% of respondents in a survey conducted in 7 countries say they are planning to leave their jobs in the next 3-6 mon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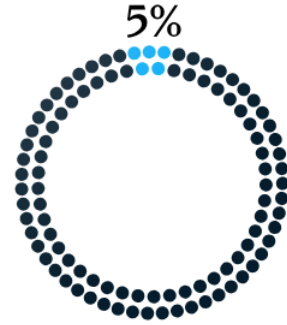


McKinsey & Company

- **역량 격차 해소:**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경쟁사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과 프로세스, 제도적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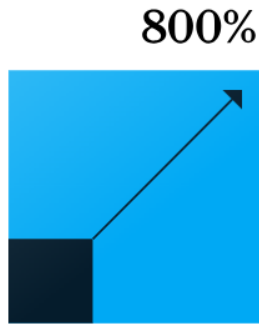
- **고객 유치 및 유지에 대한 룬:** 조직은 오늘날 근로자가 원하는 것과 기업이 필요한 것 사이의 간극을 좁히게 될 경우가 있는데, 개인별 선호도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Only 5% of respondents say their organizations already have the capabilities that they need



McKinsey & Company

The highest performers in a role are 800% more productive than average performers in the same r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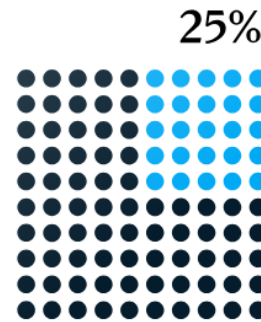


McKinsey & Company

- **리더십:** 리더는 자기 자신과 동료 팀을 이끌고 네트워크를 조율하는 등 리더십 기술과 사고방식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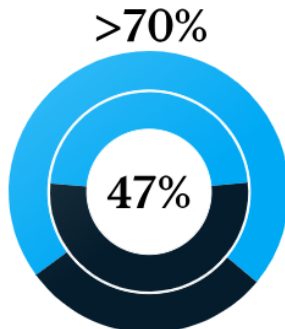
- **인재 확보:** 비즈니스 리더들은 핵심 인재를 가치 있는 역할에 배치해야 한다.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중요 역할의 20~30%가 적합한 인재로 채워지지 못한다.

Only 25% of respondents say their organizations' leaders are engaged, are passionate, and inspire employees to the best-possible extent



McKinsey & Company

>70% of respondents say their organizations express transformative DEI aspirations; only 47% say they have the infrastructure to realize their DEI aspi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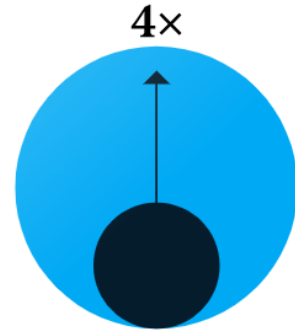


McKinsey & Company

- **다양성 및 형평성:**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커뮤니티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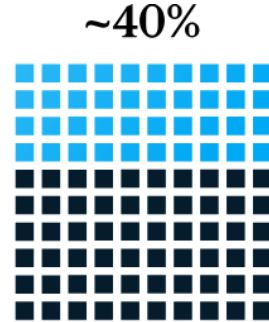
- **정신 건강:** 조직은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일회성 및 점진적 개선만으로는 불충분 하다.

Employees facing mental-health and well-being challenges are 4x more likely than others to want to leave their organizations



McKinsey & Company

~40% of respondents point to complex organizational structure as a cause of inefficiency, and a similar proportion cites unclear roles and responsibilities



McKinsey & Company

- **효율성 강화:**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당장의 위기만 관리하거나 적은 리소스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곳에 리소스를 더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IMF 총재 "연준,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모건스탠리 "S&P500 주당순익 16%↓...증시 상승세 제동 걸릴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사이클에 변화를 줄 만큼 금융기관들의 대출 축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미 CNBC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이 방송에 출연해 "의미 있는 수준의 대출 둔화를 보지 못했다"며 "일부 (대출 둔화가) 있지만 연준이 물러설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현재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향후 동향에 집중해 변화가 일어나면 민첩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